

2010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0. 3. 22 제59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 경제 여건
-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부록 1: 서울시민의 주거특성 조사 결과
- 부록 2: 2010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최근 서울의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이 공존

서울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2009년 10월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1월 현재 14.8%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월 -0.4%로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로 반전되었고, 실업률도 6.0%로 급등하였다. 현재 내수와 고용 지표의 추이가 계절적인 요인인지, 그리고 급등한 산업생산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시점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가속도가 붙은 경기회복세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소비자 체감경기 회복세 둔화, 반면 기업 체감경기 상승세 지속

2010년 1/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4/4분기 101.1에서 2010년 1/4분기에 100.0으로 감소하면서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체감경기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서울의 「소비지출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기업의 체감경기는 2009년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2010년 1/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0, 「업황전망지수」는 103.1로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전망 또한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기업들의 2/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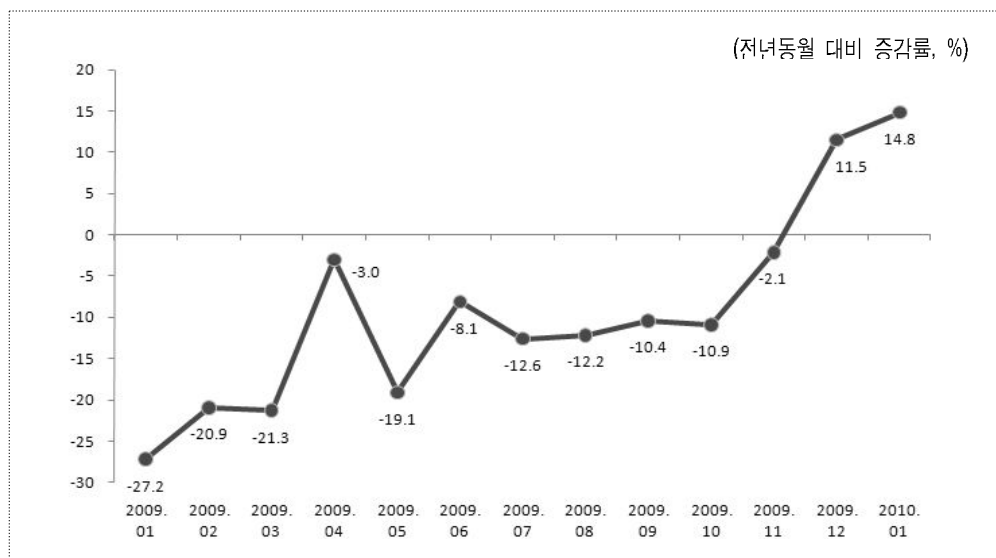
서울시 경기둔화에 대비 고용대책과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성장 잠재력 제고

현재 서울시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일회성 사업 축소 및 재조정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서울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 관련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실정이다. 또한 최근 서울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보존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I. 최근의 서울 경제 여건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둔화 및 실업률 상승 등이 공존

- 2010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은 14.8%로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1/4분기 중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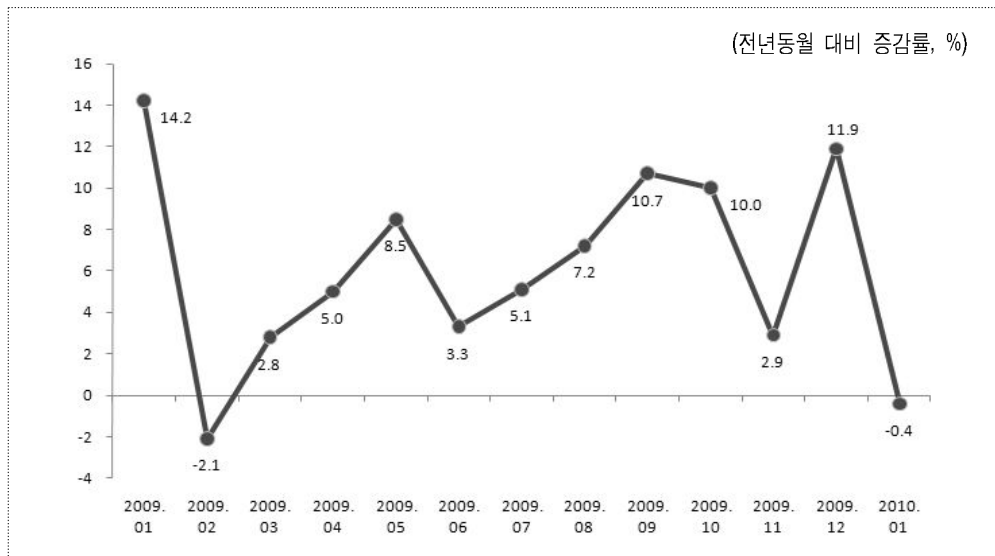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시 산업생산지수

- 최근 1년간 서울 지역 산업생산 추이는 2009년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2월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고, 2010년 1월 현재 14.8%로 최고치를 기록
- 산업 부문별로 중공업은 26.9%, 경공업은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중공업 부문이 최근 서울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
-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는 최근의 고환율과 지난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 정책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반면, 2010년 1월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0.4%로 급감,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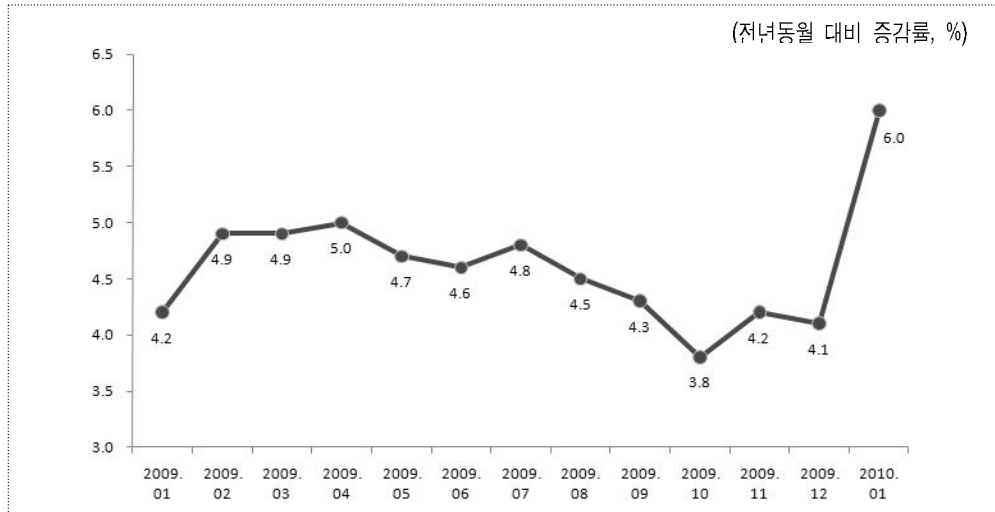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시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 대비 급락한 -0.4%를 기록
- 세부 부문별로는 백화점의 경우 1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는 9.4% 감소하여 대형마트의 판매 부진이 내수 경기를 둔화시킨 것으로 파악
- 대형마트의 판매 부진은 짧은 설 연휴 및 한파와 같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판매액이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향후 서울시는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유지하고, 내수 증가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서울의 실업률은 6.0%로 급격히 상승,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한 실정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시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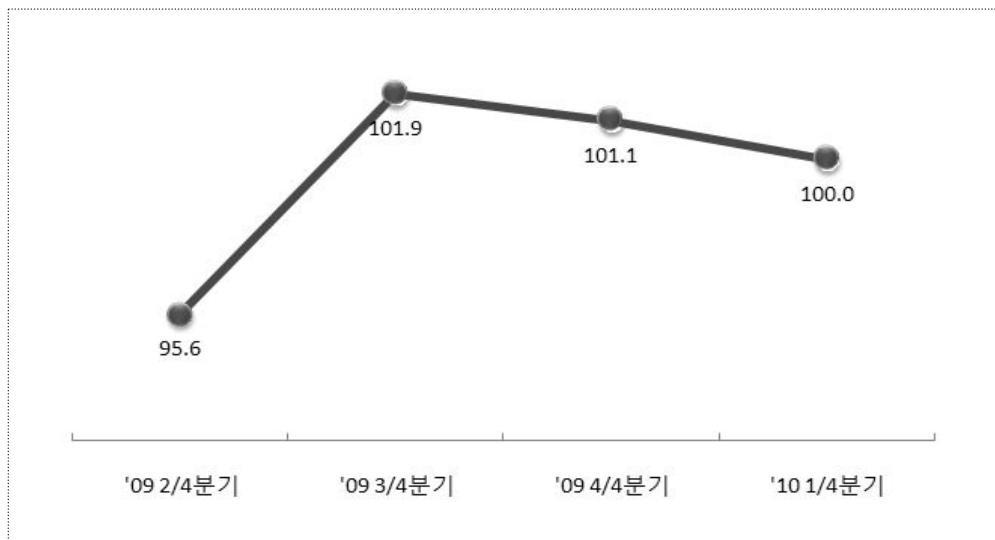
- 서울의 실업률은 2009년 4월 5.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고, 2010년 1월에는 6.0%로 상승하여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향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 실업률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서울의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8년 4/4분기 7.8%로 서울시 전체 실업률 4.1%보다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나선 것이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현재 서울시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일회성 사업 축소 및 재조정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다소 주춤: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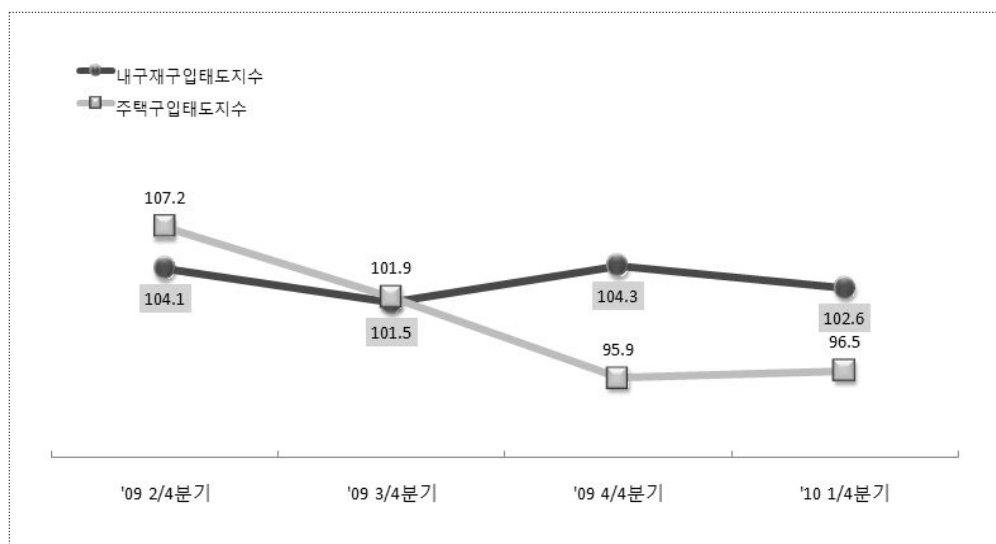
□ 2010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안정세를 유지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4/4분기 101.1에서 2010년 1/4분기 100.0으로 감소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3/4분기 101.9로 정점을 기록한 뒤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추세
- 그러나 최근 3분기 동안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어 서울 시민들은 현재 경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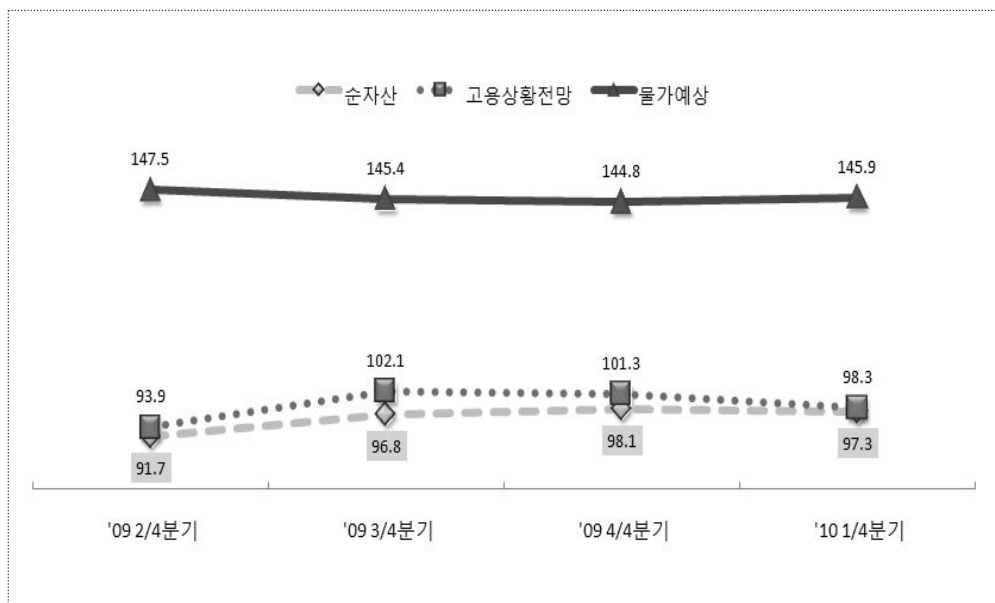
- 2010년 1/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서로 상반된 추세
 - 서울의 2010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009년 4/4분기보다 1.7p 감소한 102.6이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내구재 구입에 대한 심리는 안정세를 유지
 - 반면, 1/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6.5로 작년 4/4분기보다 0.6p 증가하여, 향후 주택 구입 심리가 2010년 1/4분기 이후 소폭 상승할 전망



[그림 5]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 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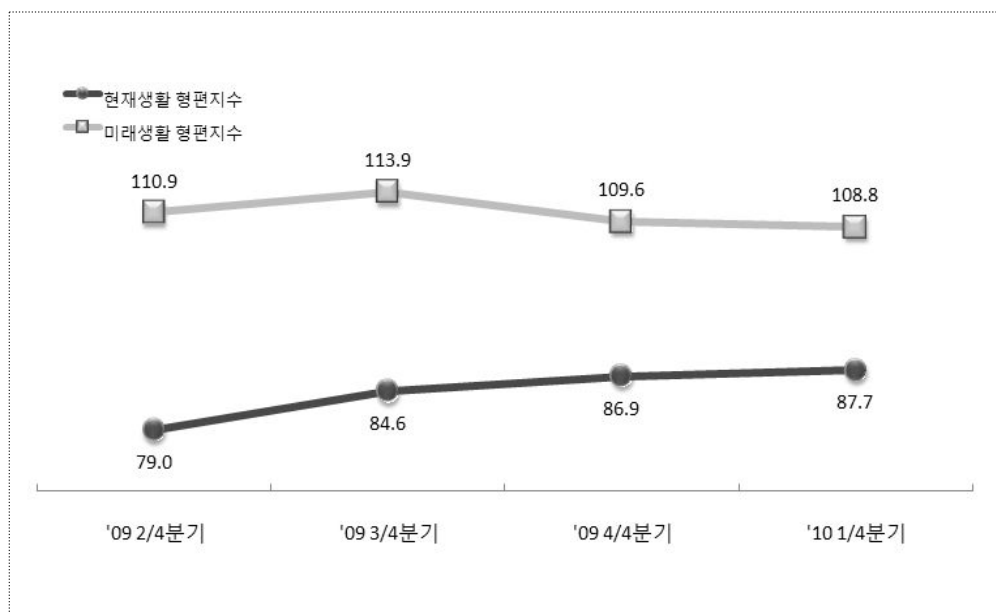
- 순자산 지수와 고용 관련 지수는 약간 감소하고 「물가예상지수」는 상승하여 향후 서울의 경제 여건은 다소 불확실
 - 2010년 1/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97.3으로 2009년 4/4분기보다 0.8p 하락하여 상승 기조 주춤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 101.3보다 3.0p 하락한 98.3로 2009년 3/4분기 이후로 조금씩 감소
 - 고용지수가 여전히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으나 향후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2010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2009년 4/4분기보다 1.1p 상승한 145.9를 기록
 - 생필품 등의 시장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물가예상지수」가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한 140 이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 물가 불안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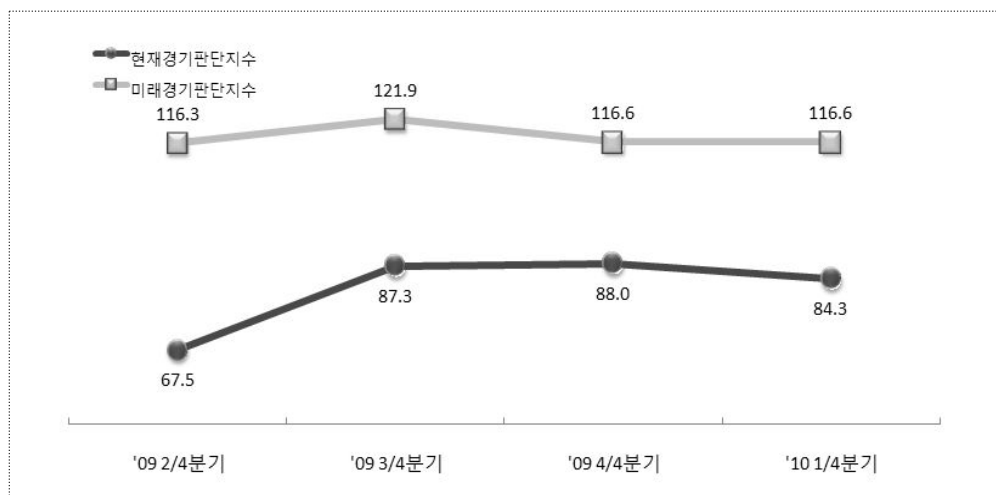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다소 감소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1/4분기 각각 87.7, 108.8을 기록
 -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9년 4/4분기 대비 0.8p 증가하였고 2009년 2/4분기 이후 소비자의 생활형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09년 4/4분기보다 0.8p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을 상회하고 있어, 1년 후 생활형편이 현재보다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망



[그림 7]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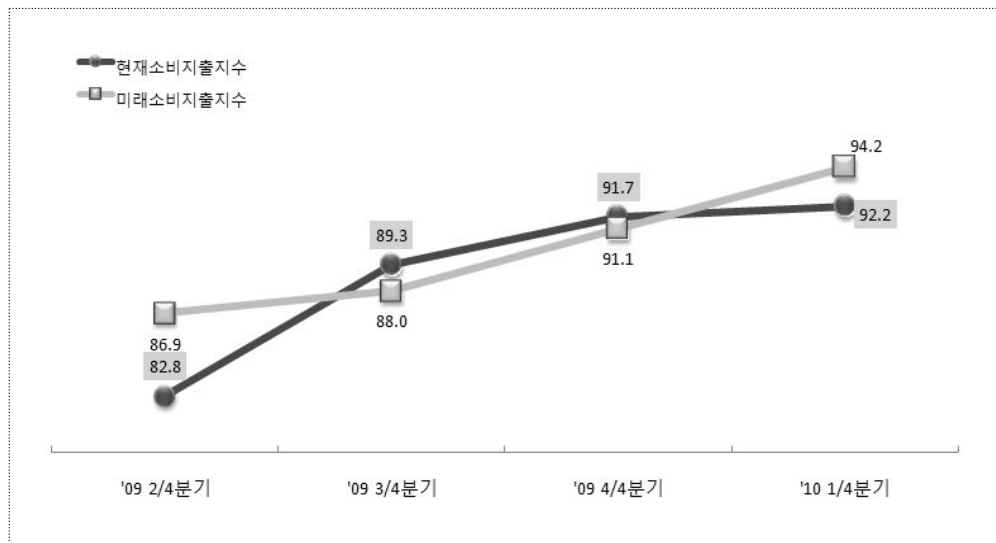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도 84.3을 기록하여 2009년 4/4 분기의 88.0에 비해 현재 서울지역의 경기가 다소 침체되었음을 시사
- 그러나 2010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09년 4/4분기와 같은 116.6로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



[그림 8]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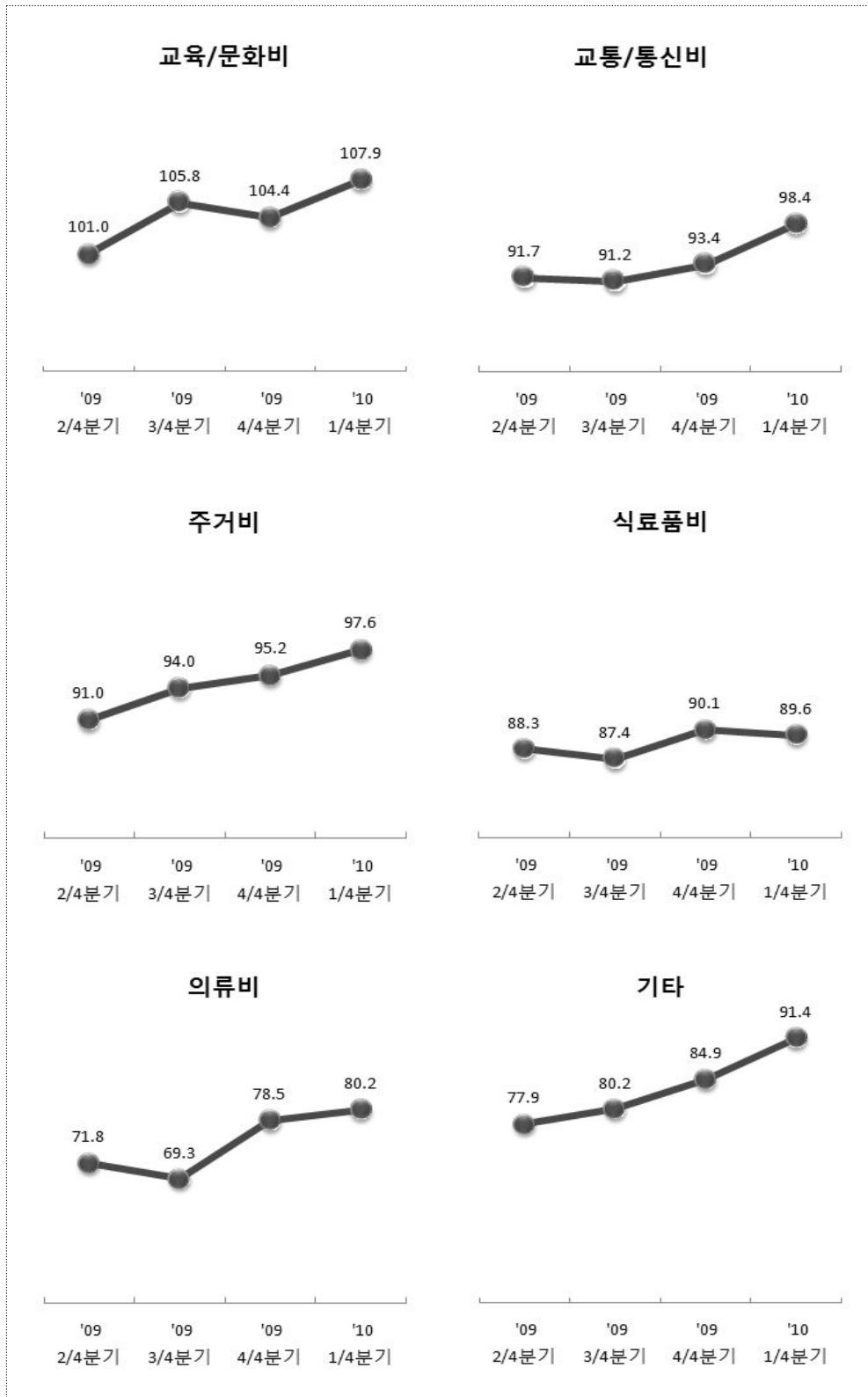
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준치(100)에 근접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지출 개선 기대
- 2010년 1/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09년 4/4분기보다 3.1p 증가한 94.2로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향후 지출에 대한 소비심리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2.2로 2009년 4/4분기보다 다소 증가하여 소비지출 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07.9), '교통/통신비'(98.4), '주거비'(97.6)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식료품비'(89.6)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가 2009년 4/4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특히 '교통/통신비'(98.4), '주거비'(97.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소비심리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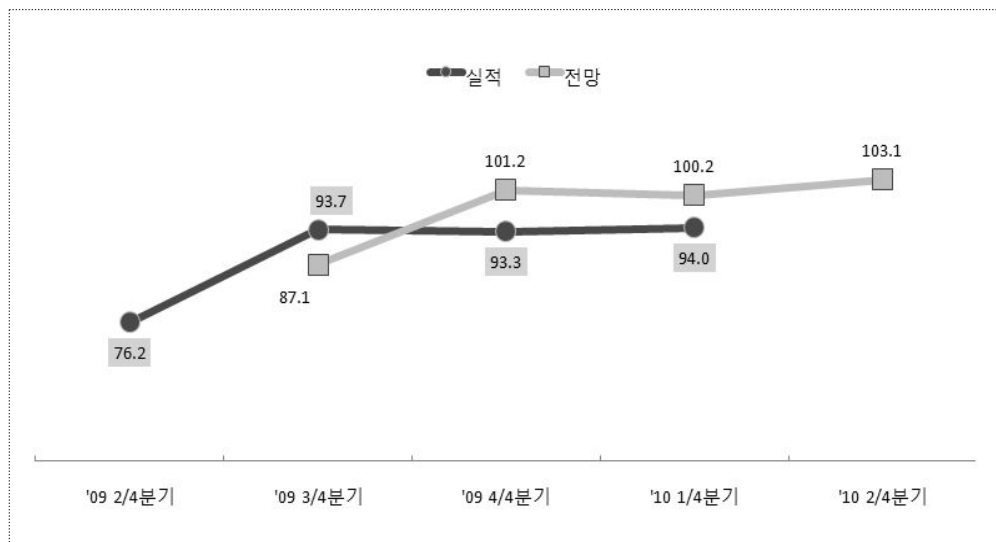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Ⅲ. 서울의 1/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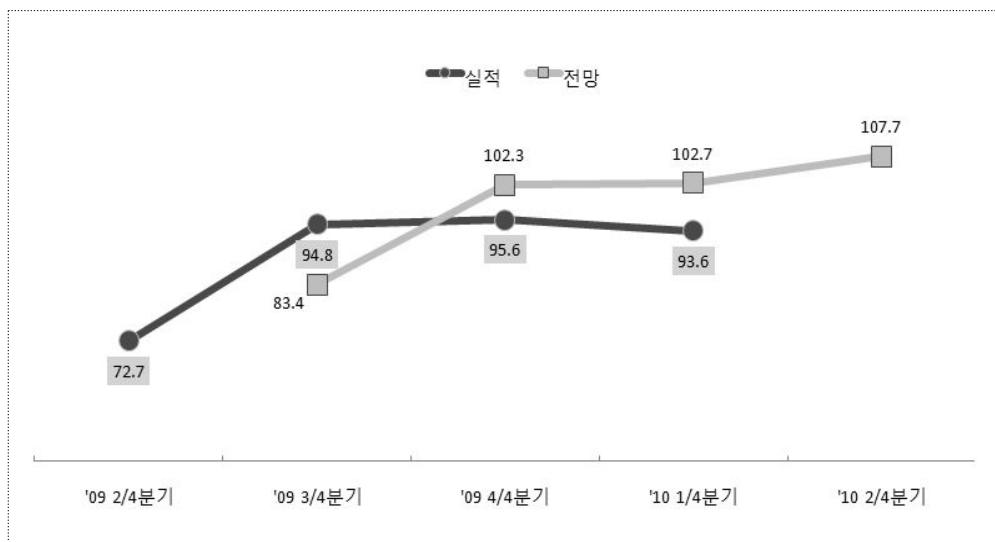
- 2010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는 2009년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
 - 서울의 2010년 1/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0으로 2009년 4/4분기보다 0.7p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의 개선 기초를 유지
 - 또한,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2/4분기 103.1로 전망됨에 따라 1/4분기 전망치보다 2.9p 상승할 것으로 조사
 - 이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1/4분기 전망치보다 상승하고 있어 다음 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 2010년 1/4분기 서울의 제조업「업황실적지수」는 감소한 반면 전망지수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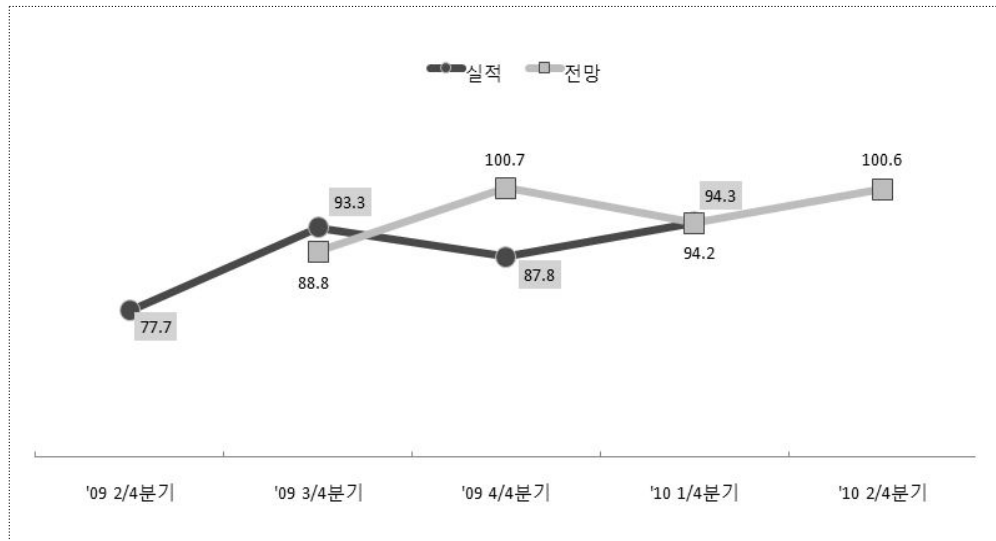
- 서울의 제조업 부문 「업황실적지수」는 2010년 1/4분기 93.6로 2009년 4/4분기보다 2.0p 감소하여 2009년 3/4분기 이래 경기회복세가 둔화
- 그러나 향후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2/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1/4분기 대비 5.0p 상승한 107.7로 향후 제조업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그림 12] 서울의 제조업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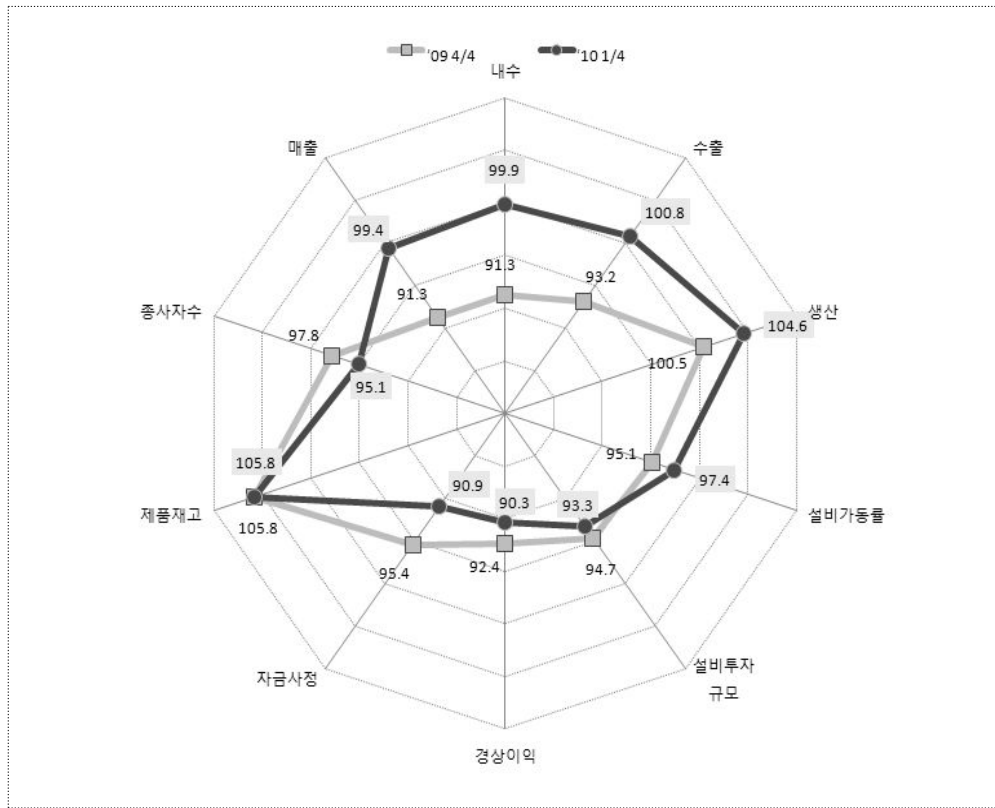
□ 서울의 2010년 1/4분기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 2009년 4/4분기 6.5p 상승한 94.3으로 조사
- 「업황전망지수」도 1/4분기보다 6.4p 증가한 100.6이며 이는 2009년 3/4분기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향후 기업경영 환경이 보다 밝을 것으로 예상



[그림 13]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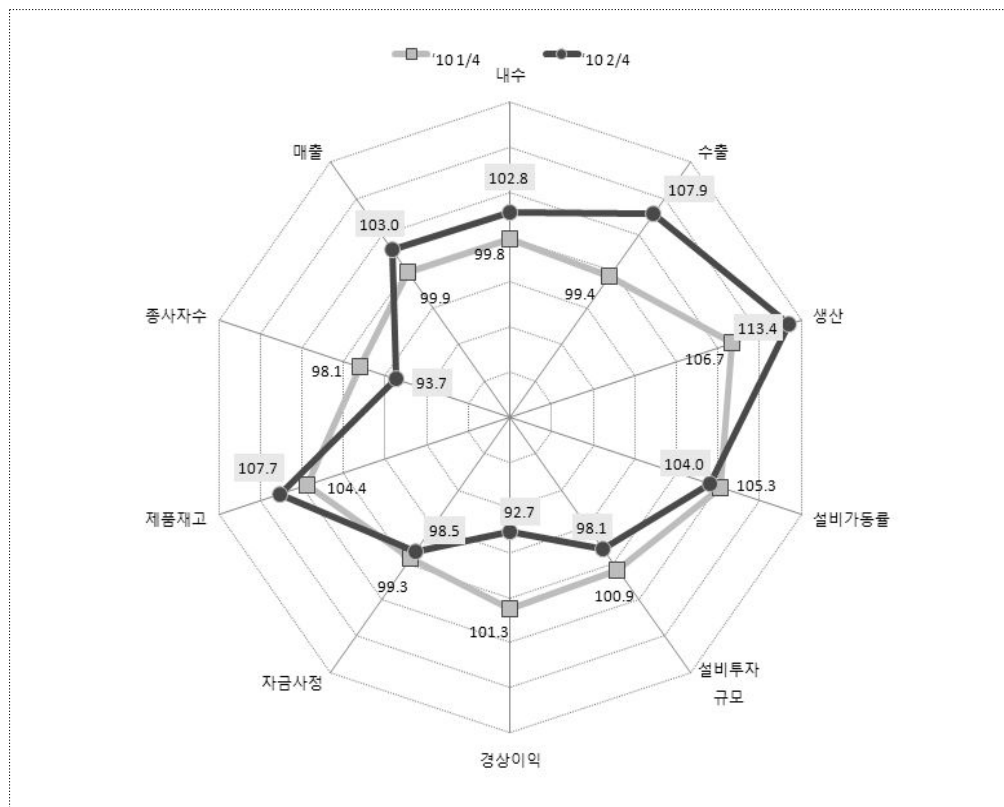
- 서울 소재 기업의 2010년 1/4분기 매출, 내수, 수출, 생산, 설비가동률 부분의 실적지수는 모두 상승세
 - 매출 부분의 실적지수는 2009년 4/4분기 대비 8.1p 증가
 - 이와 관련하여 내수 8.6p, 수출 7.6p, 생산 4.1p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실적지수」는 상승세를 유지
 - 반면, 손익면에서 경상이익은 90.3으로 전 분기 대비 2.1p 감소
 - 이와 함께 2009년 4/4분기에 비해 자금 사정은 4.5p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 부분의 실적도 1.6p 감소
 - 종사자 수는 95.1로 2009년 4/4분기보다 2.7p 감소하여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 소재 기업의 2010년 2/4분기 매출, 내수, 수출, 생산 부문의 전망지수는 1/4분기 대비 상승 예상
 - 매출 부문 전망지수는 1/4분기보다 3.1p 증가한 103.0으로 나타났으며 내수, 생산 부문도 각각 3.0p, 6.7p 증가
 - 특히 수출은 가장 큰 폭으로 8.5p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2/4분기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
 - 반면, 경상이익 부문의 전망지수는 8.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자금 사정과 설비투자 규모, 설비가동률의 전망지수도 1/4분기보다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종사자 수 전망지수는 2010년 1/4분기보다 4.4p 감소한 93.7을 나타내어
적정 인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Ⅳ.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서울의 산업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감소, 실업률 상승 등 경기 둔화요인도 공존

- 2010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은 14.8%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0.4%, 실업률은 6.0%로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
 - 향후 서울시는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유지하고 경기 관련 지표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
 - 또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일회성 사업 축소 및 재조정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는 안정세 유지, 기업 체감경기는 미미한 개선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 2010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100.0으로 2분기 연속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가 84.3을 기록하여 2009년 3/4분기 이후 서울 지역의 경기가 다소 침체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후 경기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
- 2010년 1/4분기 서울의 「기업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어, 서울 소재 기업의 가시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
 - 1/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0으로 2009년 4/4분기보다 0.7p 증가하여 기업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

- 한편 향후 기업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가 2/4분기 103.1로 전망됨에 따라 1/4분기 전망치보다 2.9p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정책 시사점

- 서울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용 관련 대책 논의 필요
 - 생산 관련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10년 1월 서울의 실업률이 6.0%에 이르는 등 고용문제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 향후 서울의 체감경기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청년실업 해소,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자금 확충 등의 정책 추진 필요
 - 청년실업과 각 세대별 실업률 및 기업의 고용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서울의 고용통계를 작성할 필요
- 최근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보존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 및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할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및 지원이 필요
 - 서울이 가지는 비교우위 산업, 즉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한 환경·에너지·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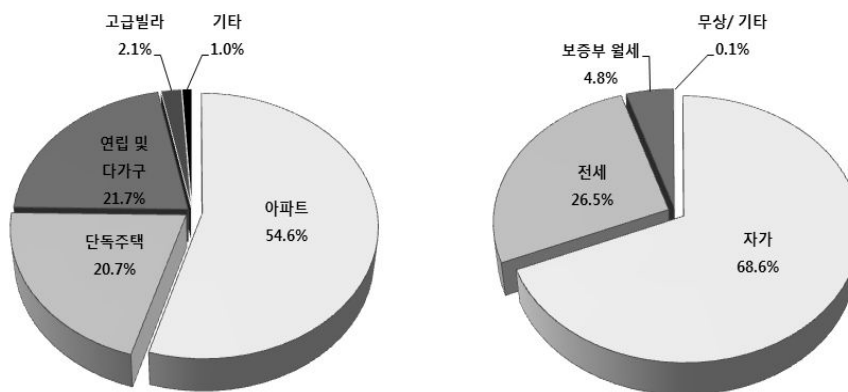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1: 서울시민의 주거특성 조사 결과

주거특성 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특성

- 본 조사는 서울 소비자 경기전망 조사의 부가조사로 서울지역 가구의 주택현황과 주택과 관련된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 조사에 응답한 1,000가구의 주거형태는 546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686가구는 자가, 265가구는 전세로 거주
- 연립 및 다가구주택 형태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가 217가구로 조사대상 표본 가구 중 3/4이상이 아파트나 다가구 형태의 집에 거주



[부록: 그림 1] 표본 1000가구의 주거 형태

서울지역 평균 전세 금액은 1억 1720만 원이며, 그 중 35.5%는 3년 내에 이사할 계획

- 평균 전세 금액은 1억 1720만 원, 평균 월세 보증금은 2174만 원, 평균 월세 금액은 35만 원으로 조사

- 전세가구의 전세금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억~1억 5000만 원이 23.2%, 1억 5000만~2억 5000만 원이 18.0%의 순서
- 전체 전세 거주 가구 중 22.5%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형편
-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3000만 원 이상이 22.9%로 가장 많았고, 1000만 ~2000만 원 미만이 20.8%, 500만~1000만 원 미만이 18.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증금은 2174만 원으로 조사
- 월세 금액은 20만 원 미만이 25.0%로 가장 많았고, 64.6%가 5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부록: 표 1> 전세금, 보증금, 월세 금액 현황

전세금	5000만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 1억 5000만 원 미만	1억 5000만~ 2억 5000만 원 미만	2억 5000만 원 이상	무응답
	9.7%	36.0%	23.2%	18.0%	6.7%	6.4%
보증금	500만 원 미만	500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2000만 원 미만	2000만~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무응답
	16.7%	18.8%	20.8%	16.7%	22.9%	4.2%
월세	20만 원 미만	20만~ 30만 원 미만	30만~ 50만 원 미만	50만~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무응답
	25.0%	16.7%	22.9%	18.8%	12.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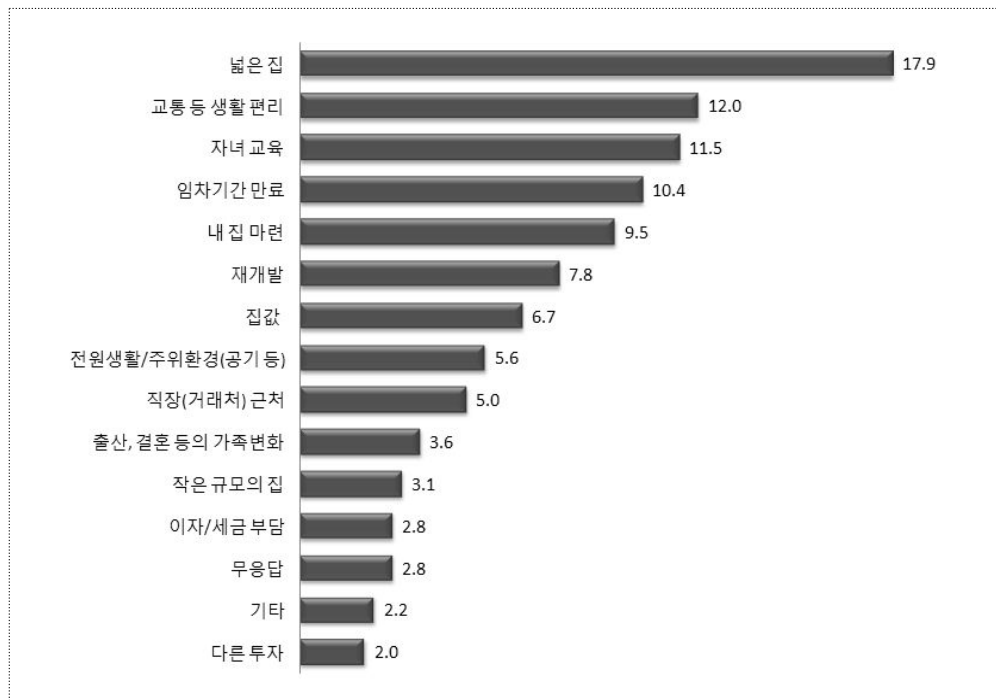
- 자가에 거주하는 686가구 중 54.8%인 376가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
- 이들 중 57.3%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 대출금 잔액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대출금은 1억 9021만 원으로 조사

- 월평균 대출금 상환액은 73만 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평균 17.7%에 해당
-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줄일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50.7%가 문화·오락비, 26.3%가 의류비로 응답
-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의 지출 감소를 고려하는 응답은 4%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 비탄력적 반응

<부록: 표 2> 자가 주택 대출 현황

대출잔액	5000만 원 미만	5000만~ 1억 원 미만	1억~ 1억 5000만 원 미만	1억 5000만 원 이상	무응답	
	22.1%	26.3%	22.6%	22.1%	6.9%	
상환액	30만 원 미만	30만~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무응답
	14.7%	24.0%	30.0%	15.2%	7.4%	8.8%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	10% 미만	10~15% 미만	15~30% 미만	30% 이상	무응답	
	27.2%	20.3%	29.5%	14.3%	8.8%	
우선적으로 줄일 항목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문화·오락비
	9.7%	26.3%	4.1%	4.6%	4.6%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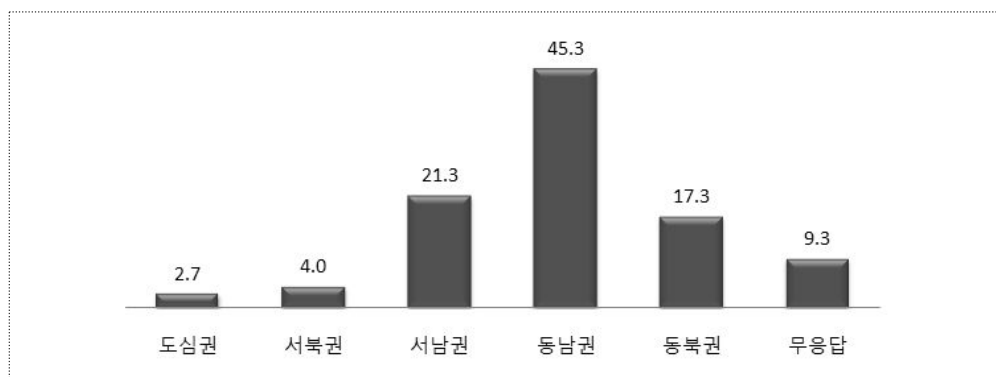
- 조사 대상 1000가구 중 향후 3년 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가 35.5%이며, 이들 중 80.1%가 서울 내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이사하려는 이유로는 '넓은 집'이 17.9%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뒤로 '교통 시설 등 생활 편리'가 12.0%, '자녀 교육'이 11.5%의 순서로 응답
 - 경제 관련 응답으로는 '집값'이 6.7%, '이자·세금 부담'이 2.8%, '다른 투자'가 2.0%로 비교적 낮은 비율



[부록: 그림 2] 이사하려는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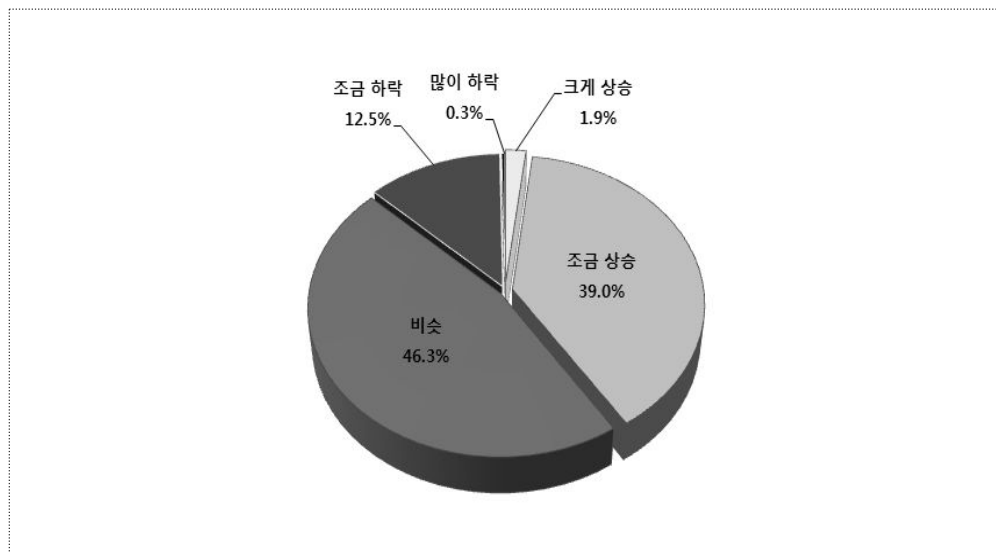
□ 중고생 이하의 자녀를 둔 448가구 중 16.7%는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이사할 계획

-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 중 45.3%는 동남권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며, 그 다음으로는 서남권 21.3%, 동북권 17.3%의 순



[부록: 그림 3] 2010년 서울 및 전국 물가 전망

- 서울지역 가구의 46.3%는 올 하반기 주택가격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서울지역 가구의 40.9%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12.8%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부록: 그림 4] 2010년 서울 및 전국 물가 전망

부록 2: 2010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부록: 표 3> 서울 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9년 2/4분기	95.6	79.0	110.9	67.5	116.3	104.1	107.2
2009년 3/4분기	101.9	84.6	113.9	87.3	121.9	101.5	101.9
2009년 4/4분기	101.1	86.9	109.6	88.0	116.6	104.3	95.9
2010년 1/4분기	100.0	87.7	108.8	84.3	116.6	102.6	96.5

<부록: 표 4> 서울 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9년 2/4분기	82.8	86.9	91.7	93.9	147.5
2009년 3/4분기	89.3	88.0	96.8	102.1	145.4
2009년 4/4분기	91.7	91.1	98.1	101.3	144.8
2010년 1/4분기	92.2	94.2	97.3	98.3	145.9

<부록: 표 5> 서울 지역 기업 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09 1/4분기	'09 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09 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10 1/4분기
매출	86.6	94.3	91.3	99.4	87.2	98.7	99.9	103.0
내수	77.5	92.3	91.3	99.9	91.6	97.8	99.8	102.8
수출	88.3	97.1	93.2	100.8	88.3	100.8	99.4	107.9
생산	81.0	101.2	100.5	104.6	87.6	102.9	106.7	113.4
설비가동률	83.7	87.3	95.1	97.4	87.3	90.5	105.3	104.0
설비투자규모	111.6	102.8	94.7	93.3	112.0	100.4	100.9	98.1
경상이익	76.9	90.2	92.4	90.3	87.2	93.6	101.3	92.7
자금사정	80.3	93.7	95.4	90.9	94.8	95.2	99.3	98.5
제품재고	111.6	104.9	105.8	105.8	112.0	104.1	104.4	107.7
종사자수	101.9	94.3	97.8	95.1	99.7	95.0	98.1	93.7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 (2010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0년 2월말)